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4 10



VOL. 220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05 ⁺¹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KOGA는 모든 회원들이 주인입니다

KOGA는 재인도네시아 봉제인들이 선, 후배간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따뜻하고 건강한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14년 9월 17일 JABABEKA G.C. 와 JAVA PALACE HOTEL에서 성대하게 마무리한 제 25회 KOGA 골프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과 초청내빈 그리고 기타 관계자 모든 분들께 KOGA 전집행부(회장단, 사무국 및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의회 회장 김 종림 배상



‘이슬람국가(IS)’ 관련 신변안전 유의 안내문

1. 최근 이라크 및 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라는 단체 및 연계 테러집단들이 외국인, 특히 서방국가 국민을 납치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슬람국가(IS)’ 는 샤리아 율법에 바탕을 둔 신정일치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로 2014.6 이전에는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또는 ‘ISIL(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현재까지 ‘이슬람국가(IS)’ 가 인도네시아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에 대한 정황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중부 술라웨시 Poso 지역이 IS와 연계가 의심되는 테러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공조하여 ‘이슬람국가(IS)’ 와 연계가 의심되는 테러단체 소속원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의 국내 복귀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례..... 6

이모저모 한인사회..... 8

- 논설위원 칼럼 / 군벌가문, 정치가문 <김문환>
- 혈액은행 및 혈액분획제제 플렌트 기공
- 기업탐방-한인회 회장단 포스코 공장 방문
- KOTRA, 공동세미나
- 한인회, 감사장 전달
- 농식품부, aT- 한식 메뉴 보급 박차
- Daniel'scape 전시회
- Popcon Asia
- Sunatan Massal
- 색동 어머니회, 전통 무용공연
- 2014년 순회 교사 학생 간담회



한-인니 문화의 달
개막식 축하공연(롯데 에비뉴)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우린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시간 관리의 가치와 그것의 결과물에 의해
인생이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과 능력주의가 신앙이 되어버린
우리의 아이들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학교나 군대에서 자리잡은 왕따문화가
여실히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

10월은 한-인니 문화의 달입니다.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을 통해
일상과 다른 세계를 접함으로써 자신을 환기시키는
시간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한-인니 교사 교류 프로그램 KOICA, 끄디리 국립유치원 현장 사업 진행 해외봉사단 협력기관 워크숍 2014, 한-인니 문화의 달 페스티벌 KOGA 골프대회 풍경과 사람 (가을의 기도) <엄종한> 자총,족자카르타지회 창립 반동한인회, 체육대회 코린도 장학재단, 장학금전달 러브 인 아시아 헤리티지 총회 JIKS 소식 JIS 소식	Jalan-Jalan Jakarta / Taman Ismail Marzuki <사공경>.....50
9월의 경제브리핑.....40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구아바 <백진협>.....52
10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4	Idul Adha.....54
헤리티지 탐방기<소예은>.....48	법률해설/ 법치국가 <이승민>.....55
	내 마음의 뜰/ 사산도의 전설 <시/그림:이태복>.....58
	건강상식.....59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60
	화 도 소62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운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군벌가문, 정치가문

김문환/논설위원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조선반도 수탈과 강압통치를 자행한 측면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다. 일본제국 군벌의 본산인 야마구치현 조슈번 출신인 그는 육군원수직에 오르며 백작작위까지 받는다. 그의 장남 데라우치 히사이치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1941

년 11월 동남아시아 점령을 책임진 남방총군사령관에 임명되어 1945년 8월 종전 시까지 시종일관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그의 예하 부대인 제16군은 1942년 3월 1일 자바북부 해안지역 세곳에 동시 상륙하여 8일 만에 서부자바 수방시(Subang) 인근 깔리자띠(Kalijati) 군용비행장에서 자바주둔 네덜란드 총독과 육군사령관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으며, 1943년 제국군원수로 진급하여, 일본제국군에서 2대에 걸쳐 원수직을 이어간 몇 안 되는 군벌가문이 된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해군을, 데라우치 히사이치 장군이 육군을 총 지휘하여 태평양전쟁을 주도하였다면, 이들을 대적한 미군 지휘부의 정점은, 해군의 니미츠 제독과 육군의 맥아더 장군이 었다. 그리고 니미츠 제독 휘하에서 항공모함전을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 데라우치 히사이치



니미츠 제독



1945년 9월 2일, 일본군의 항복조인식에 함께 미주리호 함상에 오른 맥케인 1세와 2세



파리강화협정

이끌었던 미군의 고위장성 중엔 맥케인 제독이 있다. 항공모함 작전통인 그는 60세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에 불구하고 미태평양함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쟁 내내 태평양상에서 수많은 일본함대를 격파하여 미군의 승전을 이끌었던 주역 중 한 명이였다. 종전 당시 제3함대 참모장인 그는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맥아더 원수가 주재하는 일본군의 항복조인식에 참석한 직후, 휴가를 떠난 지 4일 만에 고향에서 사망하고 만다. 미국정부는 그에게 대장 계급을 추서하여 20년 후 베트남 전쟁 당시 미태평양지휘부 사령관을 지낸 그의 아들 맥케인 주니어와 함께 '부자 4성 장군' 이라는 영예를 안게 된다. 맥케인 제독의 손자인 맥케인 3세도 조부, 부친의 뒤를 이어 해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서 활약 중 격추되어 5년간 포로생활을 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베트남전에서 미해군의 최고위직이던 그의 부친은 월맹군이 맥케인 3세에 대한 조기석방을 제안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시도하였으나, 맥케인 2세는 이를 단호

히 거절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했던 강직함이 군인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맥케인 3세는 5년 동안 월맹군의 신체적 고문과 가해를 이겨낸 후, '파리강화협정'에 의해 동료 포로들과 함께 석방되어, 종전 후 전쟁영웅으로 재탄생하여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적이 있다.

1945년부터 4년 반 동안 치른 '독립전쟁' 과 1958년 수마트라, 술라웨시 군부의 '반란정부 (PRRI)' 전쟁을 제외하곤 큰 전란을 겪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군벌계보는 찾기가 어렵다.



Jend. TNI Ryamizard Ryacudu

단지 조꼬위 정부의 군부인사 중 메가와띠 정부시절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리아미자르드 장군 정도가 거론될 수 있다. 그의 부친은 수카르노 정권 말기에 서부칼리만탄 지역사령관을 지낸 2성 장군이며, 국군사령관과 부통령



Andi Widjajanto

을 지낸 프리 수프리스노 장군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장성출신의 부친 밑에서 성장하면서 정치인으로 입신한 ‘장군의 아들’은 가끔 눈에 뜨인다. 발리에 본부를 둔 우다야나(Udayana) 지역지역사령관을 지냈고 투쟁민주당의 창당 주역이었던 고 떼오 샤페이 소장의 아들 안디 위자 안또는 43세의 국방외교분야의 학자로서 현재 조 꼬위 인수진영의 네 명의 부위원장 중 한 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떼오 장군은 기독교인으로서 군부 내에서 스스로 종교적 소신을 공개적으로 지켜온 강직한 장군이었다. 지금 집권당이 될 투쟁민주당 내에서는 이러한 군부출신 2세뿐만 아니라, 벌써 3세 정치인까지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입각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뿌안 마 하라니 뿐만 아니라 메가와띠의 차남 뿌라난다, 조카인 뿌띠까지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수까르노 가문의 정치적인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성지순례 비리사건으로 종교부장관직에서 물러난 수르야다르마 알리의 뒤를 이어받은 록크만은 수까르노정권 말기 종교부장관을 지낸 사이후 딘 주흐리의 아들로 부자간 종교부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거대정당 골카르당의 중추 조직인 쾨스고로(KOSGORO) 수장을 맡고 있는 아 궁 락소노나 수하르또 정권시절 동자부장관으



Lukman Hakim Saifuddin



Puan Maharani



Ginandjar Kartasasmita

로서 다수의 젊은 토작기업가들을 후원하여 ‘기난자르 보이즈(Ginandjar Boys)’란 신조어를 탄생시킨 바 있는 기난자르 까르따사스미따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계에서 완전히 발을 빼

지 못하는 이유는, 벌써 중견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바로 자신들의 2세들을 마지막까지 후원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아울러 1980년대 초부터 16년간 장관직을 역임한 하르따르또의 차남 아이르랑가는 지난 국회에서 10년간 상임위원장을 지내며 어느덧 중량급 정치인이 되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골카르당 총재직에 도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도 서서히 정치가문이 뿌리를 내리며 가문간의 경쟁을 통해 정계가 역동적으로 변모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기고일 2014년 9월 23일)

Airlangga Hartarto

혈액은행 및 혈액분획제제플랜트 기공식

한국의 녹색십자(대표 조순태)와 인도네시아 적십자(PMI)가 9월 24일 오전 공동사업으로 혈액은행 및 혈액분획제제플랜트 기공식을 가졌다.

Cikarang Timur Bekasi에 위치한 PT Mitra Global Haindo (대표 최길재) 현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유습 깔라 PMI 총재(부통령 당선인)과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신기업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습깔라 PMI 총재는 “혈액 공급은 반드시 전문적인 기관의 인력이 표준 규격에 적합한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현재 인도네시아의 혈액 공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자급이 힘들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 국민 2억 4천만명의 2%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혈액을 공급하려면 약 5백만개의 혈액백이 필요하다. PMI의 목표는 매년 5백만개의 혈액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혈액분획제제플랜트(알부민 등 생산)는 브카시 리뽀 찌까랑에, 혈액백 플랜트는 브카시 찌까랑 띠무르에 설립된다. PMI는 혈액백 플랜트 설립에서 한국의 녹색십자(Green Cross Medical Science Corps)와 손을 잡았다.



혈액분획제제플랜트 설립에서 PMI는 메드퀘스트 자야 글로벌(PT Medquest Jaya Global)과 키미아 파르마(PT Kimia Farma Tbk)와 협력한다.

두 공장 설립에 투입된 총 투자액은 1조 루피아에 달한다. 이중 2천억 루피아는 혈액백 플랜트 설립에, 8천억 루피아는 혈액분획제제플랜트 설립에 각각 투입된다. 향후 수익은 PM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공급량을 넘어선 혈액백은 수출될 전망이다.



기업탐방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 포스코 공장견학



12일, PT Krakatau Posco 인도네시아(법인장 민경준)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회장 신기업)을 초청하여 쥘르곤에 위치한 포스코 공장견학 기회를 제공했다.

한인회 회장단은 포스코에 도착하여 홍보 동영상으로 인도네시아의 진출과정, 선재공장, 제강공장 설명과 더불어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들을 후, 회사버스에 탑승하여 주요공장을 순회하

며 친절한 안내에 따라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민경준 사장은 “공장 정상화에 주력하여 미처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으나 늦게나마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 영광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포스코의 기술”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동포사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기필코 성공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신기업 한인회장은 “우리 한인사회의 자부심을 심어준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감사하다” 며 “주부와 학생들에게도 견학 기회를 마련하여 한인사회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길 바란다” 고 부탁하며 한인회를 초청해 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공장 입구에 수질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글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DENGAN INDUSTRI BAJA YANG KUAT, INDONESIA AKAN TUMBUH MENJADI NEGARA YANG KUAT, MAJU DAN MODERN.

DR. SUSILO B. YUDHOYONO PRESIDEN INDONESIA Cilegon, 23 Desember 2013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철의 생산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기계자동화의 우수성과 포스코의 힘을 실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KOTRA-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세미나

9월 2일, KOTRA(관장 송유황)는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센터(무역관 소재 GKBI 빌딩 12층)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를 열었다.

한-인도네시아 주요 경제협력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CEPA, MP3EI 등 주요 현안 별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소개하고 우리기업 신규진출 기회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KOTRA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제 1세션에서는 광성일 부연구위원(KIEP)의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동향과 영향에 관하여, 제 2세션에서는 정재완 전문 연구관(KIEP)의 한.중.일의 인도네시아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비교, 제 3세션에서는 민혁기 연구위원(한.인도네시아 경협사무국 파견)의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과 투자유망분야에 관하여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기체결한 한-ASEN FTA는 일본이 인도네시아와 유리한 조건으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방한 시 우리 대통령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제한하여 양국 통상장관간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 연구 추진에 합의하여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광성일 부연구위원은 전망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신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경제주권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정부개혁, 지역균형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특히 인프라, 행정개혁, 에너지, 농업, 교육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개발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재완 연구원은 한.중.일과 인도네시아 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가 심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 확대와 GPN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티모르 청소년 축구팀 후원, 감사장 전달



16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신기엽)는 한양 식당에서 동티모르 청소년 축구팀(감독 김신환)을 후원한 기업인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동티모르 청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화, 축구공, 유니폼 등 각종 축구용품 기부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한국 동티모르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위를 선양한 기업인들에게 한인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린다” 고 밝혔다.

또한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가 서로 존중하며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고 덧붙였다.

신만기대표(P.T Parkland Indonesia)는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더욱더 노력하겠다” 며 소감을 밝혔다.

감사장 전달 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 고용창출, 잠재력 등 한인사회 발전을 주제로 한 의견을 나누며 만찬자리를 가졌다.

동티모르 청소년 축구 김신환 감독은 꿈과 행복조차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던 아이들에게 축구를 통하여 행복을 찾게 만들어주고 나아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맨발의 꿈’의 주인공이자 책 ‘맨발의 기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 감사장
 박재한 대표이사 (P.T Busana Prima global
 신만기 대표 이사 (P.T Parkland Indonesia)
 서영률 대표이사 (P.T Pratama Abadi Industri)
 윤태현 대표이사 (P.T Dream Sentosa)
 임성용 대표이사 (P.T Mirina Nusantara)

자카르타 특급호텔서 한식 홍보 행사 - 농식품부 · aT “해외 특급호텔에 한식메뉴 보급 박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인도네시아 5성급 호텔인 Gran Melia 호텔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자카르타 Gran Melia 호텔에서 한식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15일 저녁 ‘Gran Melia Hotel’ 에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한인회장 등 주요 한인 인사와 현지 각국 대사, 언론 등 오피니언리더 등을 초청해 한식 프로모션 오프닝 세레모니를 거행하고, 한식 메뉴를 선보였다.

aT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전통음식연구소 4명의 전문 요리사를 현지로 파견하여 현지 셰프들에 대한 한식 요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한식의 우수성 홍보 및 한식 보급을 위해 호텔 내 한식 메뉴 신설을 추진했다.

12~24일 프로모션 기간 동안 Gran Melia 호텔 ‘Cafe Gran Via’ 에서 한식 에피타이저, 메인요리, 디저트 등 38 가지 메뉴를 현지 셰프들이 직접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aT는 Gran Melia 호텔에 현지 각종 미디어들을 초청해 한식을 홍보하고, 행사 기간 중 ‘Children



Cooking Class’ 을 열어 ‘과전’ 과 같은 간단한 한식 수업도 실시했다.

이성복 aT 자카르타 지사장은 “해외 특급호텔에 한식메뉴가 확산되면서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면서 “인도네시아의 특급호텔에서도 한식 메뉴가 정착되어, 한식의 식재료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aT 자카르타는 작년에도 인도네시아 JW Marriott Hotel에서 한식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으며, 15가지 한식 메뉴들이 현재까지 정식 메뉴로 제공되고 있다.



Daniel'scape 2014-Jakarta 전시회

18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 박
홍식 화백의 개인전 다니엘의 풍경
(Daniel'scape 2014 자카르타)을 열었다.

2008년 이후 7년 만에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이번
전시회에 김문환 문예총회장, 사공경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원장, 강희중 옥타 인도네시아회장, 미
술협회 회원 등이 참석하여 축하해줬다.

박화백은 “도시를 그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속에 깃든 문화, 즉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인 도시
를 구조와 회화적 색채효과 등을 위주로 그려보고
자 의도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더운 나라인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
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부지런한 갈매기에 빗
대어 그림을 그려보았다. 날개 짓이 힘들다고, 세
상이 무섭다고 등지를 떠나지 않는 갈매기는 어른
이 되질 못한다”며 “열심히 용감하게 창공을 오
르내리는 갈매기처럼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품 ‘갈매기’를 한국
학교에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관람객은 “선생님의 그림은 시적이다. 아름답고
쓸쓸한 서정시를 읽는 느낌이다”며 소감을 말했다.

인물을 중심으로 볼 때 달라지는 도시의 인간과
그 문화적 외형을 표현한 작품 30여점은 18일부
터 24일까지 전시됐다.

한국미술협회회원 및 그룹 스므뎃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는 박 화백은 한국인 미술가들의 모임인
한인미술협회를 설립했다. 1982년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총 24회의 개인
전과 5회의 그룹전을 가졌다.





대한민국의 참모습, **함께 만들어가요!**

제2기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 Friends of Korea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동참할 제2기 글로벌 모니터단 'Friends of Korea'를 모집합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미지를 바로 잡고, 진정한 한국을 알리는데 열정적으로 활동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대상 |

- 모집기간 : 2014년 9월 29일(월)~10월17일(금)
- 지원방법 : jhsofia@korea.kr 로 지원서 송부
*지원 양식은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http://www.kocis.go.kr> 참조
- 심사 및 발표 : 10월 24일(금), 이메일 개별통보
- 활동기간 : 2014년 11월~2015년 4월(6개월)
- 선발인원 : 30명
- 자격요건 : - 국내외 외국인 대학(원)생
- 국외 거주 유학생 또는 교포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예,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 현지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 한국 관련 전공자, 동아리 또는 블로그 운영자 우대
- 한국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분

| 활동내용 |

- ▶ 내가 몰랐던 한국(필수) : '한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교육 및 오류 시정 활동
- ▶ 내가 알고 싶은 한국(선택) : '내가 찾은 한국의 매력'을 주제로 글(에세이), 영상, 그림 등 제작 · 제출

| 혜택 |

- 선발된 전원에게 배지 및 기념품, 임명장 제공
- 우수 활동 사례 : 공감 등 정부 홍보채널 게재 및 향후 소책자 발간 시 반영
- 우수 활동자 시상 : 해외문화홍보원장 상장 및 상금(30만원) 지급

인도네시아 콘텐츠 박람회, POPCON ASIA



2014년 9월 19일 오후 2시 Gran Melia 호텔에서 한국 대표 캐릭터 로보카와 뽀로로 제작사인 로이비주얼과 아이코닉스사의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한국 캐릭터 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장을 목적으로 한국문화원과 코트라,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으로 개최된 본 사업설명회에서 로이비주얼과 아이코닉스는 각 회사의 대표작인 로보카 폴리, 뽀로로 및 타요버스에 대한 캐릭터 소개, 동남아 유럽 등 각국 시장 진출 현황 및 인도네시아 진출 계획 등 다양한 분야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로이비주얼에 이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아이코닉스(ICONIX)사는 뽀로로(Pororo, The little penguin)와 타요버스를 소개하였다. 뽀로로는 현재까지 시즌 5, 타요버스는 시즌3까지 각각 제작된 한국 대표 캐릭터이다. 아이코닉스사는 뽀로로가 현재 인도네시아에 일부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보다 많은 채널을 통한 다양한 협력업체를 찾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또한 뽀로로 판 놀이동산(키즈랜드)을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날 사업설명회에는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산업협회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잡지사, 라이선싱 업체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 캐릭터 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하였다. 로이 비주얼과 아이코닉스사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질문공세가 이어지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어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캐릭터 산업이 확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보카 폴리는 로이비주얼사에서 EBS로 공동 제작한 순수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2012년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유럽과 일본 등 전세계 81개국 19개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이 날 로이비주얼은 로보카 폴리 캐릭터 및 회사 소개에 이어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로보카 폴리 오프닝 비디오를 상영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관련 업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 POPCON ASIA 2014 : 2014.9.19~21 3일간 SMESCO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콘텐츠 박람회. 한국 로이비주얼, 아이코닉스, 온라인 게임업체 PT. KREON이 참가하여 우수 한국 콘텐츠 상품을 전시하였다.

SUNATAN MASSAL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없는이의 마음속까지



지난 9월19일 땅그랑 반튼 한인회(회장 하연수)가 땅그랑 리뽀 까라와찌 피낭시아 요식 협회와 연합하여 스트룽 지역 디지털 센터에서 이지역 어린이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넛판(sunatan massal) 행사를 치렀다.

수넛판 행사라 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할례 행사로 일생에 한번 치워주는 남자 어린이들에게 포경수술을 통해 종교의식이 아울러 이루어지는 성인식이다.

이 성인식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유한 가정에서는 종교지도자와 지역인사를 모셔 놓고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등 결혼식이상으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는데 영세민들은 수술비등 잔치를 마련 할 형편이 못 돼 차일 피일 미룰수 밖에 없든지 언젠가 한번은 빚을 안고라도 치워야 하는 서민들의 안타까움이 있다.

이에 땅그랑 반튼 한인회와 피낭시아 요식 협회가 발벗고 나섰는데 이날 행사는 이 지역에 정통하고 가장 영향력있는 사틀린도 신문사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Arif R. Wismansyah 땅그랑 시장을 비롯한 Bupati Tangerang, Zaki Iskandar와 Walikota Tangerang Selatan, Airin Racimi Diany 여사도 참석하여 땅그랑 반튼 한인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아울러 서민들을 위로하는 격려사도 마다 하지 않았다.

지역 의사들의 집도로 임시 천막 안에서 여러명이 함께 시술되는 현장에는, 태연히 수술을 받는 어린이들과 두려움으로 수술을 거부하는 어린이로 단체 시술의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오프닝 행사는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의 축하공연과 함께 이지역 지도

자들이 땅그랑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 홍보를, 유지들과 TV 방송사, 지역 신문 언론사가 공개 질의, 녹화 취재하는 형식으로 진행 됐는데 땅그랑 지역이 주택 해결을 위한 개발과 항구 도시로의 개발 비즈니스 도시로 변신해 가는 도시로서의 비전을 설명했고

이에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도, 질의 답변을 통한 부연 설명도 하는 순서와 함께 땅그랑 반튼 한인회 하연수회장의 지난 9월 3일 자카르타 경제신문과 디트로이트 지원으로 있었던 땅그랑 지역 현 지인 경리 재무교육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보 요청및 당국과의 체널확보에 관한 질의와 답변도있었다.

이행사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 제1기(이 세호 회장)에서 시작된 이 행사가 시작 할 때는 한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시키자는 의도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이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하며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반자로 한걸음 더 나아 가는데 땅그랑 반튼 한인회가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무엇보다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이번 행사는 근래에 들어와 한국사회의 문제점인 기업인들의 마인드 부재로 인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현사회의 분위기에서 사회문제의 단면이 들어난 가진자들의 정체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인문학이 바탕이된 인성위에 기업인들에게 자발적인 사회환원 요구하는 시대에, 이행사는 이번에도 행사가 시작되면서 소문을 듣고 십시일반 내놓은 영세한인 개미군단들의 자발 기탁은 관과해서는 안될 소중한 마음으로 진행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땅그랑 이태복 기자(taeboklee@yahoo.com)



인도네시아에 한국문화 알리기 및 교류 협력강화

퓨전 뮤지컬 심청전 및 전통무용 공연

사단법인 한국 색동 어머니회의 한국 문화알리기 행사
인도네시아 공연이 10일간 대장정



9월 13일 오후 4시30분 자카르타 롯데 에비뉴 쇼핑몰 아이스홀 마지막 공연으로 대단원 막을 내린 이번 공연은 한국 안정행정부 지원 아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주최, 땅그랑 반튼 한인회와 꿈나무학교 공동주관 그리고 롯데 쇼핑 에비뉴. 한국 문화원. 한-인니 문화 교류원의 후원으로 수라바야 한인교회(9월6일) 땅그랑 꿈나무 학교(9월 10일) 한국 문화원 (9월 12) 롯데 쇼핑 에비뉴홀 (9월13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심청전 공연은 퓨전 뮤지컬 심청전과 전통무용 부채춤, 전래 놀이, 성주놀이, 사물놀이, 입춤, 시낭송과 민요의 만남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공연으로 각 공연장마다 성황을 이루었다. 퓨전 뮤지컬 심청전은 물론 전래놀이에서는 동대문 남대문,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고무줄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콩주머니 던지기, 여우야 여우야, 우리집에 왜 왔니, 등은 스마트폰과 게임으로 점철된 해외 사는 한인 2세대들에게는 부모님 세대에 대한 동경심과 이해를,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어린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아울러 잠시나마

과거로 시간을 돌려 가슴 뭉클함을 자아 냈고 현지인들에게는 아직도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의 놀이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한국 어린이 놀이 문화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을 만들었다. 이번 한국 색동어머니회를 이끌고 온 전 KBS 아나운서 출신 박영애 단장은 현시대 어린이들의 언어 순화를 위해 구연 동화 등 어린이 정서교육을 위해 국내에서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활동할 때보다 해외공연에서 한인들에게는 추억을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알리게 됨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자주 이런 기회를 갖기를 피력했다. 이러한 공연이 한류 열풍에 편승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인도네시아에 알려지고 드라마와 k-pop의 장르를 넘는 새로운 장르의 문화로 끊임없이 교류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 세대와 어린세대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땅그랑 이 태복 기자(taeboklee@yahoo.com)



2014년도 순회 교사 및 학생 간담회 개최



주 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조태영)은 한국어 교육 확대 및 2015 KGSP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을 홍보하기 위해 SMK Negeri 57, SD Strada Wiyatasana, SMAK 1 BPK Penabur, SMAN 47 현지학교 4교를 방문 하여 간담회를 9월 8일(월) ~ 9월 11일(목) 가졌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수업을 확산하고 인도네시아 초. 중. 고등학교에 한국어를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교육부의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문화교육부는 2013년 장관령 개정으로 고교과정(SMA, MA)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으나 한국어교육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여 아직 정식교과보다는 엑스트라커리큘럼으로 한국어수업을 실시하는 현지학교가 많은 형편이다.

방과 후 활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과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 유학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은 한국 전통 복장, 악기, 음악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간담회 후 이어진 퀴즈 대회에도 적극 참여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SMKN 57는 실업고등학교로 교사교환프로그램으로 한국연수를 다녀온 현지인 교사가 2개 반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자력으로 실시 중인 한국어교육 현지화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한편, SMAN 47은 대사관에서 방문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국어반 학생들이 직접 그린 학교풍경과 한국문화를 묘사한 그림을 전달하였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앞으로도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현지학교에 한국어 교재와 한국도서를 지원하고 순회 교사 및 학생 간담회와 한국어 교육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어 보급 촉진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제공: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국-인도네시아 교사교류 프로그램 공동 역사수업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UNESCO 산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APCEIU로 줄여서 표기함)에서 시행하는 ‘한국-인도네시아 교사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카르타 근교의 초·중등 학교에 파견된 한국교사 14명이 약 100일간 (8월 12일 ~11월 22일) 전공 수업과 한국어 수업, 한국문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현지에서 공유하고자 APCEIU와 본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와 함께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업 참가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할 예정이다.(10월 1일 ~ 3일)

상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교사가 파견되어 있는 서부자바주 보고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SMA Negeri 2 in Bogor)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역사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역사수업을 진행할 교사는 대구 논공중학교에 근무하는 박영숙 교사와 SMA Negeri 2의 현지교사 Emi Rosmiami씨이며, 교사들은 양국의 대표적인 독립 운동인 ‘반동 불바다 사건’과 ‘3.1운동’을 소재로 하여 각각 와양(Wayang)과 소시오 드라마(Scio Drama) 방식으로 팀 티칭(Team teaching) 수업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언어의 벽을 넘어 소통을 하고자 한다.

양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독립을 쟁취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운동 비교를 통해 양국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기여한 인물 ‘양철성(인도네시아 이름, Komarudin, 일본 군속 출신)’을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 교사는 남은 기간 동안 본국과 인도네시아 역사를 공유하고 비교하는 수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역사수업

KOICA, “끄디리 국립유치원 현장사업 진행”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 파견 박지원 해외봉사단원이 지난 10일 수라바야 끄디리군의 빠구(Pagu) 국립유치원의 시설 보수와 유아교육을 위한 다목적실을 증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10일 개원식을 열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파견한 해외봉사단원이 지난 9월 10일 수라바야 끄디리군의 국립 빠구(Pagu)유치원의 시설을 보수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개원식을 가졌다.

코이카 박지원 해외봉사단원은 현장 사업 활동을 통해 끄디리군 빠구유치원에 미흡했던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부족한 교육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다목적실을 신축했다. 빠구유치원에는 원아 150여명이 등교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유아교육의 가장 기본인 위생과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체육, 음악과 같은 보충수업을 위한 공동공간의 부재로 원아들은 보충수업을 위해 길을 건너 공간을 이동하는 등의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본 현장사업을 통해 지원된 수도시설에서 원아들은 위생적인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지원 봉사단원의 교육을 통해 교사들은 손 씻기, 양치질 등과 같은 유아교육에 필요한 기본 위생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스크린, 컴퓨터 등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실은 원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보충교육에도 이용하게 되며 원생들의 학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각종 행사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끄디리군 교육국장, 동부자바 주 국제협력국 직원, 인근 학교와 유치원의 교사 등 지역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본 개원식이 빠구 지역 전체의 의미있고 기쁜 행사임을 실감케 했다. 이 행사에서 원아들은 전통무용 외에도 한복을 입고 한국의 꼭두각시 공연을 선보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은 축사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협력 덕분에 이러한 훌륭한 시설이 완성될 수 있었다”며 “이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으로 본 시설물들을 이용해 더 훌륭한 가르침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사업을 통해 시설물의 개보수를 이끈 코이카 박지원 봉사단원은 끄디리 내에 가장 큰 유치원 중 하나인 빠구유치원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주변 유치원들에게 유아교육의 선진 사례들을 보이고 교사들의 역량을 개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OICA, '해외봉사단 협력기관 워크숍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인도네시아에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의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례 해외봉사단 협력기관 워크숍이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주관으로 자카르타 솔탄 호텔에서 지난 9월 18일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와 교육문화부 등 정부부처 14개 기관과 봉사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44개 기관의 관계자들을 포함해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봉사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기관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KOICA 봉사단원들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파급효과 등을 발표하였으며, 동부자바 주정부 국제협력 과장은 KOICA의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데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KOICA 측도 동 사업 활동의 현안과 향후 봉사단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을 통해 기관장들은 봉사단 사업의 발전과 역할 확대, 홍보 등의 주제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건설적인 제안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자신들이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현지적응과 성공적 활동 등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다짐했다.

김병관 사무소장은 “90년도에 처음 인도네시아에 봉사단원이 파견된 이래, 현재 25년째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내고 있다. 우리 봉사단원들을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동료와 같이 생각하고 잘 지원해 달라”며 봉사단원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봉사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서로 가진 것을 마음을 열어 내어놓고 나누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며 가르침을 얻어가는 과정 “이라며 앞으로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봉사단원들의 활동에 대해 일침된 목소리로 높이 평가하고 파견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으며, 이번 워크숍이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봉사단의 활동과 사업운영 체계 등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큰 만족감을 표했다. 금번 워크숍은 인도네시아 내 봉사단 협력기관들의 봉사단사업에 대한 협조의지와 봉사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각 기관들과 KOICA와의 연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43명의 해외봉사단원이 한국어, 태권도 및 각종 직업 기술교육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힘쓰고 있다.

"2014년 한국-인도네시아

K-푸드, K-트레블, 공연, 전시, 영화제 등



좌로부터 백성택주아세안대표부대사
내외, 신기업 한인회장내외, 조태영
대사내외, 유습갈라부통령당선인,
비제이하비비전대통령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국경일 리셉션(10.2)과 한-인니 문화의 밤 축하공연(10.3)을 시작으로, K-푸드와 K-트레블 페어, K-애니메이션·출판 콘텐츠 전시, 한-인니 미디어·설치미술전, 한인 문예총 종합 예술제, 한-인니 영화제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10월2일 개막식 전야 행사를 하얏트 호텔에서 가졌다. 이 자리엔 유습갈라 부통령 당선인과 비 제이 하비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각국 귀빈들로 자리를 가득메웠다.



문화의 달 페스티벌

10월 한달간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다음 날 3일, 개회식에서는 디노차관, 피터르 곤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 삼술 창조관광부 총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국내외 보도진이 모여 한-인니 문화행사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조태영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하는 행사이다. 행사의 진행도 양국의 팀 공연으로 준비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의 힘을



느낀다. 이 행사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디노 차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포기를 모르는 민족으로 알고 있다. 놀라운 경제성장 뿐 아니라 문화가 강한 나라라는 생각을 한다” 고 말했다.



<< 대형 비빔밥 만들기

붙임 1) 한-인니 문화의 달 페스티벌 세부 일정표

행사명	일정	장소	주요프로그램
국경일 리셉션	10.2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	각국 귀빈 참석 국경일 경축 행사 년버벌퍼포먼스 더페인터즈;히어로 공연
개막식 축하행사	10.3 11시	롯데쇼핑 애비뉴	개막식 축하공연 퓨전국악밴드 '권'공연 2014년 인니 예술경연대회 우승팀 공연VIP 인사 초대형 비빔밥 비비기 퍼포먼스
한-인니 문화의 밤	10.3. 19시	자카르타 발라이 까르티니	2014년 인니 예술경연대회 우승팀 공연년버벌퍼포먼스 더페인터즈;히어로 공연
한식페스티벌	10.3~5	롯데쇼핑 애비뉴	한국음식경연대회 전문요리사 요리시연대회 김치만들기 체험행사 한국음식 시식회 및 판촉행사
한국관광페스티벌	10.3~5	롯데쇼핑 애비뉴	한국관광 상품 판매 및 홍보부스 운영 한국의 헤어, 미용전문가와 함께하는 K-Beauty Show 한국관광홍보대사 특별 토크쇼 및 공연
한 -인니 문화공연	10.3~5	롯데쇼핑 애비뉴	퓨전국악밴드 '권'공연 년버벌퍼포먼스 더페인터즈;히어로 공연 2014년 인니 예술경연대회 우승팀 공연 인니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 공연 한사모, 한바패, 국악사랑, 어린이합창단 및 아버지 앙상블 공연
국기원 시범단 태권도 공연	10.12	롯데쇼핑 애비뉴	한국 국기원 태권도 시범공연
한인 문예총 공연	10.12	JIKS 나래홀	한인문예총 산하 단체 종합예술공연
한인 문예총 공연	10.13	롯데쇼핑 아이스 팰리스	영상과 해설이 있는 경기민요 공연
한-인니 미디어아트전	10.8~31	롯데쇼핑 애비뉴	미디어인터뷰(8일)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회투어 (일반인대상)
한-인니 영화페스티벌	10.23~28	자카르타, 반둥, 땅그랑, 버카시, 바똌	10.23 개막행사(그랜드인도네시아몰) 10.23~28 영화상영 - 한국 최신 및 우수영화 10편, - 인니 우수영화 8편 상영



2014년 종합예술제 〈부제: 한인 세대가 남기는 메시지〉

공연

- ◆ 일시: 10월 12일(일) 18:30~20:30
- ◆ 장소: JIKS 나래홀
 - 소속단체 및 인니전통예술단
 - ◎ 예술단 초청 (1차): 무형문화재 경기민요 4인조(단장 이나영)
(2차): 10월 13일(월) 18:00~19:30
(장소: 롯데쇼핑 에비뉴 4층 아이스 팰리스)
 - 바틱실습: 16:00~18:00 (나래홀 건물 앞)
(한*인니문화연구원 주관)

전시

- ◆ 일시: 10월 11일(토) 16:00(개막식) ~14일(화)
 - 시화전 · 시낭송, 다도 시연, 서예전, 사진전
 - ◎ 미협전시 16일(목)~ 22일(수)
 - ◎ 플라워전 24일(금)~ 26일(일)
- ◆ 장소: 한국문화원(에퀴티 타워 17층)

주최 : 재인도네시아한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한인문예총)
& 한국문화원(문화예술 명사초청사업)

후원 : ▶코린도그룹/키테코 자야아공사/삼성전자 인도네시아현지법인
▶김재유 회장/배상경 회장/이현상 회장

* 간단한 석식 준비 * '문학과 사람' 제 2집 (문인협회)배포

☎연락처: 기획/사공경(0816 1909976), 공연/이일하(0815 11506664),
전시/이수진(0858 80706856)

제15회
인도네시아한인미협전
Exhibition of Korean Art Association 2014



2014.10.16(목) ~ 22(수)
(Opening: 10.16.목 오후 5:00)
한국문화원 Equity tower 17층

 한인미술협회

KOGA (한국봉제협의회) 골프대회

지난 9월 17일 JABABEKA G.C. 와 JAVA PALACE HOTEL에서 성대하게 마무리한 제 25회 KOGA 골프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과 초청내빈 그리고 기타 관계자 모든 분들께 KOGA 집행부(회장단, 사무국 및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대회와 시상식행사의 장소를 분리하여 처음으로 시도하였음에도 골프장 측과 JAVA PALACE 호텔 박재한 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큰 대과없이 행사를 무난히 잘 치루었다고 자평하고자 합니다.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주신 조태영 대사님, 박영식 공사님, 임현철 관세관님, 신기엽 한인회장님, 조규철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양영연 대한체육회 인니회장님 및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우리 협의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공통사안 중의 하나인 외국인 취업제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컨설팅 김민규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곱 가지에 달하는 대회기념품으로 대회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신 모든 찬조사 대표님들과 봉제인을 위한 기계경품으로 대회의 격을 한층 높여주신 찬조사 대표님,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찬조품 또는 현금/상품권 등으로 행사를 알차고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회원님과 초청 손님들께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아닌 대회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거나 심적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으로 집행부와 진행요원을 대표하여 정중

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너그러운 아량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쉽지 않은 평일 근무시간을 할애하여 본 대회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용서와 이해와 배려를 아울러 청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의회 회장 김 종립 배상

Name	Mobile Phone
김종립 회장	0816 107 895
김갑한 부회장	0811 136 646
안창섭 부회장	0816 188 2761
김두현 부회장	0812 8481 1116
박세호 부회장	0813 2589 3201
고정윤 부회장	0816 186 9851
배웅식 부회장	0815 965 2775
정철주 부회장	0811 155 1210
배도운 대표상임위원	0816 180 7450
이병수 사무총장	0816 181 3615
손병섭 사무차장	0815 872 0000
홍희준 사무차장	0815 183 8806
황 준 사무차장	0811 984 4731
박효진 사무차장	0815 911 2067
최경란 상근간사	081 1800 2293



가을의 기도 < 김현승 >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을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함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Ubud, Bali

사진과 글 엄종한 한인뉴스편집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족자카르타지회 창립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 이하 인니지부)는 지난 8월29일 족자카르타에서 족자카르타지회(이하 족지지회) 창립식을 거행하였다. 이태복 인니지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족지지회 창립식과 더불어 2부 순서로 '6.25 및 북한인권사진전' 그리고 인니문인협회 회원들의 '시화작품 전시회'를 함께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족지지회 조현보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다수의 족자 한인동포들 그리고 한인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현상범 인니지부 회장은 개회사에서 “조현보 족지지회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2006년 지진과 화산피해 당시 족자 한인동포들께서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이어가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삶의 터전인 인도네시아도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물결이 널리널리 퍼져 나아가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자총 중앙회장의 임명장과 족지지회 기를 건네 받은 조현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호국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면서 유엔 NGO로서의 봉사활동도 병행하는 단체가 바로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이며, 해외거주 동포로서 고국이 아닌 해외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조국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동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승주호 인니지부 고문은 축사에서 족자 동포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일에 족지지회가 앞장서 줄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많은 족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인니 전통춤 공연과 족자한사모 회원들의 K-POP 공연에 이어 김은숙 시인과 한인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의 축시 낭독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흥미를 더하여 주었다. 자총인니지부는 앞으로도 반동지회와 수라바야지회 등의 창립식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이모저모, 한인사회



반동 한인회, 한인동포 체육대회 열어

9월 20일 반동한인회(회장:최이섭) UPI(국립인도네시아 교육대학) 운동장에서 반동의 한인동포 가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신명나는 놀이마당을 펼쳤다.

어린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날 특별히 반동한사모(회장:Sani Ihsania)의 특별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코린도장학재단 인니 대학생 28명에게 장학금 전달



국민대학교



인도네시아대학교



가자마다대학교



빠자자란대학교



보고르농과대학교

1998년부터 매년 인니 대학교의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지난 9월말 각 대학교를 순회하면서 2014-2015 학년도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인도네시아대학교, 가자마다대학교, 국민대학교, 보고르농과대학교, 빠자자란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모두 28명이다. 정무웅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인도네시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코린도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인니 대학생 연인원 62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2003년부터 시작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에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인니 대학생들이 현재 32명에 이르고 있다.

CGNTV 인도네시아 개국 "러브 인도네시아"

지난 9월 17~18일 인도네시아 CGNTV 지국은 자카르타에서 '러브 인도네시아' 행사를 가졌다.

CGNTV는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국한 이래 미국 LA(2005년 8월 설립)와 일본 도쿄(2006년 10월)에 지사를, 대만 타이베이(2008년 6월)와 태국 방콕(2010년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2012년 3월)에 제작센터를 두고 있는 글로벌 방송으로 한국어 채널과 일본어 채널, 중국어 채널로 각각 24시간 방송되고 있다.



9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디지털 위성 방송인 인도비전 '라이프채널'에 하루 2시간씩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헤리티지 정기 총회 개최

연간강좌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법"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일시 : 2014년 10월 18일 10시~12시
장소 : 헤리티지 도서관
강사 : 정세영 차장
(삼성전자 Product Marketing 그룹장)



Sentral Senayan 1 (플라자 스나얀 내) 건물 17층
021-572-5870

우리가 늘 손에 쥐고 사는 핸드폰의 기능 중에서 잘 몰라서 손해보는 기능이 많습니다.

1. 사진 관리 tip -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2. 자카르타 실시간 네비게이션
3. 뉴스 어플리케이션들
4. 번역 도구들
5. IM(메신저) 활용법
6. 영화 및 드라마 공짜로 보기
6. 음악 관련 어플리케이션
7. 기타 질의 응답

지난 9월 17일(수) 네덜란드 대사관 에라스무스 하우스에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의 정기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략 400여 명의 외국인과 20여명의 한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전통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코리아 섹션
김주현/ 이수진



JIKS

JIKS 한가위 잔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9월 8일 한가위 잔치를 실시하였다.

행사는 7시 2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시까지 다양한 전통 풍습 체험 및 놀이로 진행되었다.

초등에서는 어머님들의 강강술래로 행사를 시작하여 사물놀이 관람, 윷놀이, 투호, 제기 이어 차기 대회가 있었다. 각 교실에서는 민속 음식 체험으로 이어졌는데, 차례상차림도 있었다.

중등에서는 씨름대회, 한가위 영상관람, 한복 페스티벌, 사물놀이 공연, 제기차기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고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JKS

신나는 JKS 초등 체육대회 '청팀 이겨라, 홍팀 이겨라'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JKS, 교장 김승익)는 9월 26일 본교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초등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각 학년을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경기로 대결하였다. 7시 2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시 30분까지 1~3학년과 4~6학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만국기가 휘날리는 운동에서 공정한 경기를 다짐하는 선서와 새천년체조에 이어 개인달리기를 하였다. 이후 1~3학년은 지구를 굴리자, 힘내라 힘!, 날아라 주사위, 복 받아라, 서로서로 힘을 모아, 신나는 빗자루, 엄마처럼 예쁘게, 과관하늘 하얀꿈 등의 경기를 하였다.

4~6학년은 지구를 살리자, 돼지몰이, 카드 뒤집기, 바나나 보트, 장애물 릴레이, 지네발 릴레이, 타이어 끌기, 일심동체, 특급열차 등의 경기를 하였다. 1~3학년의 태권체조 축하공연에 이어 양 팀의 열띤 응원 속에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 이어달리기로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학생들은 협동심과 단결심을 배우고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JIKS, 초등자녀를 둔 본교 학부모 및 교민 대상 진로 / 진학 교육 특강 실시 -10.13(월)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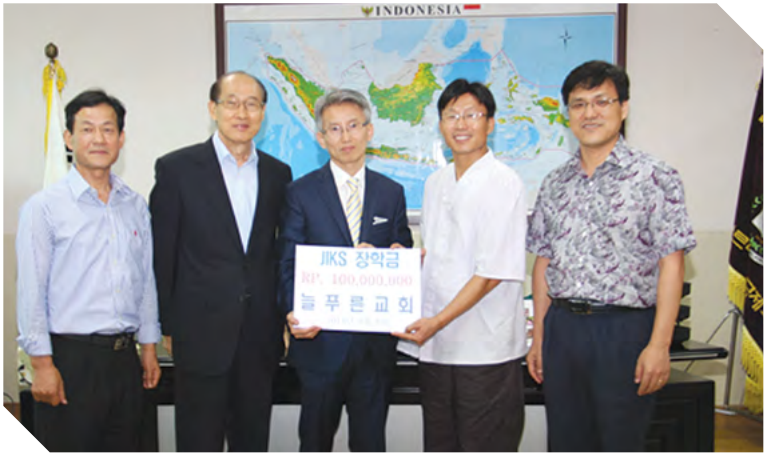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10월 13일 나래홀에서 본교 초등학교 학부모 뿐만 아니라 초등 자녀를 둔 자카르타 지역 내 교민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JIKS 초등 학부모들의 건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5년~10년 뒤 재외국민 자녀들의 대학입시 변화를 진단해 보고 이에 맞춰 현재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바람직한 학습전략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강이 자녀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와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만큼 유치원과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교민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특강 안내
- ▶ 일시: 2014. 10. 13.(월) 10:00~11:40
 - ▶ 장소: 나래홀
 - ▶ 강사: 교사 이찬욱(고등학교 교무부장), 교사 최석진(진학지도 부장)

늘푸른교회, JIKS에 장학금 기탁

자카르타 소재 늘푸른교회(담임목사 김신섭)는 9월 8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에 1억 루피아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1999년에 설립된 늘푸른교회는 JIKS에 지난

2013년에도 1억 루피아의 장학금을 기탁한데 이어 금년에도 본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JIKS는 늘푸른교회의 장학금을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Pulau Putri 야외 체험 학습



(학생기자 김혜경)

JIS 12학년 Biology class는 Thousand Islands 에 있는 Pulau Putri 섬으로 향했다.

JIS에서는 11, 12학년 Advanced Placement (A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IB 과학분야에서 생물을 듣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마지막 12학년에 수학여행(2박3일)을 참여하여야 한다. IB 생물은 higher level, standard level 로 나뉘어져서 각각 9월 7일, 9일 날 Ancol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Pulau Putri섬에 도착하였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두 원주민 여인들의 발리 전통 춤과 음악이 학생들을 맞아 주었다.

이번 여행은 이전에 있었던 많은 여행과는 달리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실험들을 하였다. Pulau Putri 섬의 바닷물과 자카르타 Ancol 의 바다 물을 비교 하는 것, 섬의 흙을 조사 하는 것, 달팽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실험을 만드는 것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관찰하고 조사하며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Pulau Putri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을 만끽하며 생물에 대한 지식을 쌓고, Pulau Putri 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인도네시아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이 외에도 그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동물과 생물들도 접할 수 있었다. 그 중에 모니터 도마뱀 (Monitor lizards) 들이 해변 뿐만 아니라 숙소 여기저기에 있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었고, Pulau Bintang 에 가서 snorkeling 을 할땐 다양한 물고기들과 산호초들을 구경 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이 신기 해 하는 성게를 가지고 와 성게의 등뼈를 관찰하고 성게를 이용하여 실험도 하였다.

학생들은 섬에서 보고 관찰한 것에 대한 여러개의 보고서를 쓰고 난 후 sunset cruise 를 타 보기도 하였다. 약 1800여 개의 섬들로 펼쳐진 Pulau Seribu 의 바다를 배를 타고 시원하게 내달렸고, 그 후 크루즈를 타고 일몰도 구경하며 휴식을 취한 다음 학생들은 또 다시 실험을 하며 보고서를 작성 해 나갔다.

평소 학교생활과는 달리, 자연 그대로를 체험하며 야외에서 진행된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짧은 시간 속에서 습득하였던 깨달음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오랜 시간 간직하게 될 것이다.





2014년 9월 월간 경제 브리핑

印尼의회, 지방단체장 직접선거제 폐지 <DPR>

조꼬위 여당 견제에 야당 힘 얻어...세력 균형 맞추나

25일 밤 자카르타스나안 의회(DPR)에서 의원들이 지방선거 간선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6일 새벽 의회는 찬성 226표, 반대 135표로 지방의회에 의한 간접선거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 참석의원 대부분이 기권하고 나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방단체장선거 직접선거제를 폐지하고 나섰다. 26일 새벽 이뤄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폐지법안 가결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반대와 비난 속에 이뤄졌다.

찬성은 226표, 반대는 135표였다. 이날 의회(DPR)에는 총 의석 560석 중 486석이 됐다. 평소 같으면 의회에 300명 이상 참석도 쉽지 않은 것을 미뤄보면 이번 간선제 개정안이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안 지지 진영에서는 직접 선거제가 폐지되면 선거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패를 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오는 10월 20일 출범하는 조꼬위 차기 정부는 직접 선거 방식을 지지했지만 지난 7월 대선에서 패배한 빠라보워 수비안토 전 육군전략사령관이 이끄는 그린드라당 등 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범야권 '메라뿌띠연합'이 간선제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법안 지지 진영에서는 직접 선거제가 폐지되면 선거자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패를 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민주당 참석의원은 128명(의석수 148석)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단체로 기권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확신하건대 지방 단체장 선거가 간접선거제로 바뀌면 부패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그는 빠라보워 수비안토를 선두로 하는 메라뿌띠 연합의 지방선거의 간선제에 반대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간선제 개정안이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며 이번 간선제 법안 통과는 조꼬위 당선인의 첫 정치적 패배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방 단체장선출을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 지방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메라뿌띠 연합이 우선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꼬 위도도 신 정권은 여소야대 의회 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에서도 대선에서 패배한 빠라보워에게 밀리게 된다.

대부분은 이번 결과를 놓고 '민주주의의 후퇴' 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빠라보워 측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지휘권을 놓쳤지만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쥐었고, 이를 이용해 조꼬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쥐게 된 것으로 풀이했다.



Jakarta Biz Daily
Pusat Office Tower 15th Fl 1501A
J. Jend. Sudar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560

자카르타증시 5,200선 돌파! 긍정전망...루피아화 가치 곤두박질

자카르타증시(IHSG)가 5천선을 넘었다. 지난주에는 사상 최고치 5,262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IHSG가 5,180~5,200선을 유지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대선을 끼고 있는 해와 그 다음해는 항상 전년보다 증시 상황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センチ멘털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IHSG는 올해 5,400~5,500선 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조금연료(BBM) 가격인상에 따라 증시는 5,000~5,200선에 그칠것이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BoE와 ECB가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금융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내부요인으로는 현재까지 시장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에서 2014년 3사분기의 평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현지언론 이닐라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미 디마스 와유 애널리스트는 추천 기업으로 빠꾸원 자띠(PT. Pakuwon Jati·PWON), 뱅크 느가라 인도네시아(PT Bank Negara Indonesia·BBNI) 뱅크 락얏 인도네시아(PT Bank Rakyat Indonesia·BBRI), 뱅크 쉐트랄 아시아(PT Bank Central Asia·BBCA), 칼베 파르마(PT Kalbe Farma·KLBF), 아디 까르야(PT Adhi Karya·ADHI) 등을 추천했다. 또한 가장 추천하는 주식으로 탐방 바뚜바라 부깃 아삼(PT Tambang Batu Bara Bukit Asam·PTBA), 아다로 에너지(PT Adaro Energy·ADRO)를 소개했다.

루피아화 환율 약세와 중앙은행

한편 지난 18일 루피아화-달러화 환율이 달러당 12,030 루피아(중앙은행BI기준)로 루피아화가 약세로 돌아섰다. 루피아화 환율 약세 문제는 인도네시아 경제 문제에 항상 꼬리표 같은 존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 중인 것이 연료보조금 삭감과 연료 수입량 조절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은행(BI)이 기준금리를 통해 시장개입을 계속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달 뒤면 신정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항상 보조금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조치로 사용되어 왔다. 현지 시장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아직 '신 정권 출범까지는 일단 두고보자'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가스 마피아 척결에 빼뜨랄과 SKKMigas 해체돼나

국영 석유 뿌르따미나(PT Pertamina)의 자회사인 빼뜨랄(Pertamina Energy Trading Limited·Petral)이 석유가스 마피아의 진지였던 것으로 지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빼뜨랄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석유가스 판매 회사로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공급 판매와 관련된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투쟁민주당 소속 에펜디 심볼론 의원(의회 제 7위원회 에너지담당)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이 SKK Migas(석유가스산업 규제기관)와 빼뜨랄을 해체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지언론 르르데카에 따르면 지난 15일 에펜디 의원은 “잠정 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로 이지만 확정 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판에 따라 SKK Migas는 해체되고 기존 기능은 국영기업부 산하로 흡수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이 모든 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빼뜨랄이 맡아온 석유가스 계약 및 매매 기능은 곧장 뿌르따미나 산하로 넘어갈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조꼬 위도도 차기 정권 하에서 석유가스 마피아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단지 뿌르따미나와 빼뜨랄을 없앤다고 해서 마피아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단편 적인 대책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데 뿌라다나 SKK Migas 임원은 24일 “빼뜨랄을 해체한다고 해서 모든 석유가스 마피아가 사라지진 않을 것” 이라면서 “석유가스마피아의 뿌리를 뽑으려면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공급 시스템 자체를 뒤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석유가스와 소비량의 갭을 매우려면 정부의 관리감독 자체가 일단 효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모나스는 월요일 오후에 쉽니다
자카르타 모나스(독립기념탑) 운영시간이 9월 15일부터 월요일에는 새벽 4시~오전 10시까지로 변경됐다. 휴일이 없는 모나스의 특성상 월요일 오후에 휴관하는 것이다. 화~일요일은 새벽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다. 사진=아딧야(Aditya)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간선제 통과
25일 밤 자카르타스나안 의회(DPR)에서 의원들이 지방선거 간선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6일 새벽 의회는 찬성 226표, 반대 135표로 지방의회에 의한 간접선거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 참석의원 대부분이 기권하고 나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사진=안따라(Antara)

제 18회 AG인니 개최...기뻐는 했지만

제 18회 아시아경기대회(AG) 인니 자카르타, 팰렘방, 반둥서 열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지난 20일 한국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총회를 열어 제 18회 아시아경기대회(AG)를 4년 뒤인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962년 제 4회 자카르타 대회 이후 56년 만에 역대 두 번째 AG를 개최하게 됐다.

지난 2012년 OCA 총회에서 이 대회 개최지로 하노이가 선정돼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AG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지난 4월 개최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와 올림픽위원회(NOC)가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개최권을 가져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수라바야를 개최도시로 내세워 베트남과 유치 경쟁을 벌였다가 탈락했지만 결국 수도에서 열게 됐다.

애초 다음 대회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AG' 이었지만 OCA는 당초 평창 동계 올림픽(2018년)이나 도쿄 하계 올림픽의(2020년)을 피하고 중간 정도인 2019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대선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개최시기를 2018년으로 요구하며 다음 대회까지는 기존의 4년 주기가 유지된다.

로이 수르요 청년스포츠 장관은 21일 2018년 AG 개최 도시가 총 3곳이며 자카르타특별주, 남부수마트라 팰렘방시, 서부자바 반둥시가 개최도시라고 밝혔다.

3개 도시는 개막식을 중앙자카르타 봉까르노 경기장에서, 폐막식을 팰렘방시 자카발린 경기장에서 하기로 OCA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올림픽위원회(KOI)의 리따 수보위 위원장은 "AG개최는 인도네시아의 자랑이자 도전이기도 하다"면서 "도핑 등 승부조작 없는 대회를 목표로 경제성장에도 공헌할 수 있기르르 바란다"고 밝혔다. 리따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AG실행위원회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자카르타 특별주 바수기 짜하야 뿌르나마 부지사도 "인도네시아의 발전상을 보여주자. 지난 1962년과 현재는 매우 다르다"며 의욕을 보였다.

자카르타에는 약 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BMW 경기장 (북부 자카르타 탄중쁘리옥 지역)이 올해 착공했다. 또한 지난 1962년 대회에 맞춰 건설된 봉까르노 경기장의 개보수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바수기 부지사는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MRT)과 모노레일 운영을 2017년에 공식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남부수마트라의 알렉스 지사는 팰렘방 지역의 경기장 부근에 선수촌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으로 아시아 대회는 최근 대회 규모의 비대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인천 AG에서는 건설비 및 운영비 등 약 21억 ~ 22억 달러가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고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베트남이 제 18회 AG개최를 포기하면서 들었던 재정난도 운영비와 경기장 신설 비용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개최를 불안해하는 목소리에 대해 리따 KOI 위원장은 "OCA의 현지 조사를 2차례나 받는 등 준비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낙관했다.



가을에 대한 단상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대 자연의 섭리를 인생에 반추해 보며 사색하게 하는 계절 가을! 가을이오면 모든 시인이나 작가들은 저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가을을 읊어댄다.

딱히 시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을이 되면 두고 온 고향과 지나온 시절의 추억으로 그리움도 생각도 깊어진다. 저마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감성의 계절, 생명도 자연도 더욱 완숙해져 깊이를 더하게 하는 가을을 그 누구인들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풍요로운 들판에 낙엽이 떨어져 구르는 처연하도록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 앞에 어떻게 초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또한 예외는 아닌 듯싶다. 깊어지는 가을의 서정을 뒤로하고 다시 인니로 돌

아가려니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이렇게 가을의 단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말이다. 가을의 정취를 물씬 안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함박웃음이 새어 나온다. 아마도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안온함과 여유로움에 행복바이러스가 전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을을 느끼며 평온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음은 우리의 삶이 주는 소중함이다. 바쁘게 달리가 숨을 고르며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가을의 자태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가을의 정서를 만끽하며 이런 저런 생각에 젖다보면 어느새 겨울이 오고 또 봄의 문턱에서 우리는 찰라 같은 세월을

아쉬워하겠지. 그렇게 삶은 바쁘게 돌아가고 마치 바쁜 것이 현대인을 대표하는 상징인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에 골몰하며 열중하며 어떠한 일에 매이여 산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딱히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주부의 일과도 바쁘긴 마찬가지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 는 우스갯소리처럼 우리의 일상사는 늘 바쁨의 연속이다. 이렇게 바쁜 삶이다보니 가을이 오면 무작정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문득 길을 걷다가 낙엽을 밟으며 가로수 길의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되고 또는 유난히 높고 푸르러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을임을 의식 할 때면 만감이 교차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프랑스의 문학가 앙드레모로와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자기를 바라보는 인간을 참된 지식인>이라고 했다. 우리가 비록 학문만을 내세우는 지식인이 아닐지라도 사색의 계절 가을은 우리를 잠깐 동안이라도 생활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깨어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가을은 정말 멋진 계절이다.

내가 해보고 싶은 가을여행이 있다면 굳이 비행기나 자동차 보다는 기차가 더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요즘 빠르게 달리는 고속기차 말고 단풍이 물든 산자락 구비를 돌고 돌아 군데군데 남긴 붉은 연시가 매달린 늙은 감나무 마을을 지나는 완행 열차쯤이면 좋겠다. 추수가 끝난 들녘을 느릿느릿 지나가는 멧, 길가에 널린 빨간 고추명석이 정겹고 코스모스가 하늘대는 신작로길이 시야에 어린다.

거기 아득한 옛날에 두고 온 고향의 그리움을 되새기며 길가에서 손을 흔드는 코흘리개 아이들에게 정겹게 손짓한다.

가을날의 고향에 대한 기억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토록 살아있다.

가을의 단풍잎은 또 어떠랴, 맑은 햇빛 앞의 단풍 잎사귀는 빨간 사과

처럼 향긋해 보이기도 하지만 노을 앞에선 부끄러운 듯 불그스름한 모습이다. 단풍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어릴 적 뛰어놀다 눈병에 걸렸을 때 외할머니가 청 단풍 잎사귀를 달인 물로 눈을 씻어주 시던 생각이 난다. 잎사귀의 그 어떤 성분이 균을 소독해서 눈을 낮게 해주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로부터 수 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눈앞이 종종 흐려질 때가 많다. 노안이 한창인 나이가 되어있는 나를 발견하곤 이따금 그 시절 거목의 단풍나무가 한없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단풍나무 앞에 서있다 보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침침한 나의 눈이 선명한 시야로 띄워질 것만 같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사무치던 아쉬움의 기억들을 한번쯤은 가을여행의 회상으로 모조리 소생시켜 보는 것도 살아가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행복충전이 될 것 같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라는 어느 가수의 노랫말이 아니더라도 가을이면 때로는 받는 사람도 없는 어느 누구에게든 긴긴 편지를 쓰고 싶다. 하염없는 사연으로 두 장도 좋고 석장도 좋고 내키는 대로 긴 얘기를 쓰고 싶다. 받아줄 상대가 없어도 할 얘기는 무진장이고 그렇게 쓰다보면 그것은 주는 글이 아니라 내가 받는 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떠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격려하는 글이 되어서 살아가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내어 능히 자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기에... 자기의 삶을 옹골이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사유반추(四侑反芻)를 위한 자성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가을날에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소생하며 아름다운 계절로 재현되는 또 다른 내면의 가을을 만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을을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이니 독서의 계절이니 하며 인간내면의 연마를 다듬는 기회로 삼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에 대한 나의 시를 읊어 본다.

<가을이 내게로 여행왔다>

**내 마음의 하늘에
그리움으로 매달려 있는 가을
양떼구름 타고 바람을 따라
머나먼 나라로 여행 왔다**

**세상의 사유 속에 갇혀
몸은 살고 있으되
마음은 허공을 배회하는
뜨겁고도 차가운 적도의나라로
그리움보다 더한 아름다움으로
오색빛깔 매혹적인 찬란한 자태로
숨겨진 깊이로 살아 온 세월만큼
더욱 붉게 익은 단풍으로
낙엽을 쓸 듯 추억을 물고 온 가을**

**밝은 햇살 옷 갈아입은
추억을 마중 나온 얼굴들이 놀러오고
울긋불긋 짐 보따리 풀어놓은
가을정취로
허기진 정서를 달랜다.**

**햇살적신 붓으로
거대한 바다물감 풀어
노랑고 붉게 마음의 창 적시며
행복한 물감놀이 하고 있는
가을이
내게로 여행 왔다.**

그 찬란한 가을은 어김없이 적도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에도 찾아왔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인 요즘, 그리움의 계절, 가을이 잠시 동안 여행 왔다고 해두자. 멀고먼 바다를 넘어 태양계를 지나 온갖 시련을 물리치고 찾아왔다. 그 아무리 내려 쬐는 태양계의 뜨거움이 시샘을 한다 해도 가을의 정취가 넘치는 열대 꽃들의 손짓은 가을을 불러 모으는 유혹이요 가을의 찬가임이 틀림없다.

이곳 자카르타의 10월은 앞 다투어 가을을 노래하는 예술인들의 문화축제가 한창이다.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을의 여신은 이 멀고도 먼 적도의 나라에도 찾아와 우리 한인들에게 이국 만리타국에서 잘 살고 있냐고 격려의 몸짓으로 토닥 토닥 다독여 주고 있다. 거기에는 분명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이 바라는 희망이 있고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을에 대한 나만의 애뜻한 정의를 내리며 멀리 찾아와 준 가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29회 열린강좌

3인의 전문가에게 듣는 진로 직업 멘토링

일시 : 2014년 11월 1일 (토요일) 10:00 ~ 12:00

강사 및 일정

10:00 ~ 11:00 강연

●제목; 책으로 맺은 인연 강사; 임정진 작가

11:00 ~ 12:00 전문가의 진로 멘토링

●임정진 동화 작가와의 만남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바우덕이>

●김희경의 연극이야기 <마을극단 '동동' 연극배우>

●김희영의 전시회이야기 <압구정 리베아트홀 큐레이터 >

장소: 한*인니문화연구원

후원: 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

한*인니문화연구원 Jl. Gatot Subroto Kav.58 Korea Center Ruangan 404

(di sebelah Korean Embassy, sebelum rumah sakit Medistra)

연락처 Tel. 081510538186 / 081510703065

인니어 / 앙글롱 수업 시간표 (2014년 10월)

	월	화	수	목	수
9:30-10:50	초급 II	-	초급 II	초급 I 9:30-12:20	앙글롱 11:00 - 13:00 (10월 15일 개강) 앙글롱 11:00 - 13:00 (10월 15일 개강)
11:00-12:20	중급	초급 II	중급	초급 II	

*인터넷 접수/ 문의 : lovekoin@hotmail.com / (+62 21) 527-3630
 *초급 II는 초급 I과 중급의 중간 수준 *비회원은 연회비 Rp 200,000 납부

수업	수강기간	강사	수강료(Rp)/24회
초급 I (목)	11월 6일 ~ 2월 5일	Adam	1,500,000
초급 II (월·수)	10월 6일 ~ 12월 29일	Adam	1,500,000
초급 II (화·목)	9월 9일 ~ 11월 27일	유정은	1,700,000
중급 (월·수)	10월 13일 ~ 12월 31일	Adam	1,700,000

바람..그리고 인연..

소 예 은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 이 곳에도 가을이 오긴 오려나보다.

요즘은 꽤 바람도 시원하고 하늘도 푸르고 높다. 여전히 뜨거운 태양아래 내리쬐는 햇살이 뜨겁긴 하지만 가끔 보여주는 쾌청함이 좋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이하 헤리티지) 코리안 색션의 센틀 돌레길 탐방!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이들과 서늘한 가을 바람을 느껴보고자 선뜻 따라 나섰다. 설레는 맘으로 새벽부터 부산을 떨어 김밥도 싸고, 간식도 준비하고. 과연 사용할 날이 올까 싶었던 등산복도 꺼내 입고 급게 화장까지 하고 발길을 재촉한다.

다들 같은 맘이었으리라~~

꽤 이른 시간 집결지에서 첫 대면일인데, 어찌나 반갑게들 인사를 건네시는지..얼마나 익숙했던..정겨운 한마디던가~! 안녕하세요~ 그 환한 웃음을 마주하면서부터 ‘나의 선택은 탁월했노라’ 그 날의 전 일정이 기대될 수 밖에~!!

도란도란 다시 차를 나눠 타고 돌레길 탐방 출발 장소로 이동! 이제 인도네시아 1년차 새내기인 내게는 마냥 신기한 얘기들이 쏟아진다. 하다못해 썩은 어디 가서 사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느 물에 가보니 어떤 유용한 물건이 있더라. 아이 데리고 나들이 갈만한 장소로는 어디가 좋은지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거리로 우리들의 수다는 끊기는 법이 없다. 누가 우릴 처음 만난 사이라 상상이나 할까?

Heritage 회장 이수진님의 인솔로, 바나나 나무의 넓적한 잎 하나 만으로도 이곳이 한국이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산뜻한 오솔길부터 옹기종기 걷기 시작한다. 오를수록~ 눈 앞에 펼쳐지는 산 아



래 자연의 풍광에 와~~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고, 푸르른 하늘과 초록의 나뭇잎 사이로 새어 나오는 뜨거운 햇살이 마냥 아름다울 뿐이다.

자카르타 시내선 찾아볼 수 없었던, 뽀얀 먼지 오르는 거친 자갈길!! 오랜만에 자연과 더불어 몇 발자욱 걸으니, 그리 험한 산세도 아니건만 이미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숨까지 험땀이다. 여기 저기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설명도 들으면서, 쉬엄쉬엄 얼마나 올랐을까. 바나나 잎과 더불어 처음 보는 이색적인 풍경~!! 증턱의 산비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아담한 사이즈의, 야리야리한 줄기를 갖고 있지만 진한 초록 잎으로 서로 뒤엉켜 안정적인 긴 터널이라도 형성된 듯 보이는... 커피나무 농장이란다. 줄기와 잎 사이사이로 진빨간 커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한국의 앵두와 비슷하다고 할까? 하지만 그 보다는 좀 더 큰, 그리고 탐스러운~~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산비탈 전부가 커피나무의 그 하얀 꽃으로 온통 뒤덮여 장관이었다는 회장님의 설명도 곁들여졌다. 그 풍광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온 산의 향기가 향긋한 루왁커피 한 잔이 내 앞에 있는 듯 신선했다.

또 이 곳에선 고구마와 무, 마..그 사이 어디쯤 비스무레한 썩콩! 커피나무 못지 않게 대체 식량으로 사용될 만큼 많은 것이 썩콩 나무란다... 썩콩 튀김,부친개 등 처음 먹어본 후에 참 한국 입맛

에 맞네...맛있다...웰빙음식이구나~~ 생각 했었는데, 역시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롭다.

걸을수록 덥지만 종종 느껴지는 산의 서늘한 기운과 깊은 숲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와 우리의 발걸음을 돕는다. 조출한 인원이라 오히려 더 가족적이고 오순도순 잤었던~ 어느새 고지에 다다랐다. 산행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빠질 수 없는 점심시간!! 웅기중기 모여 앉아 손수 정성스레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 놓으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사는 얘기들을 털어 놓으며 그간 쌓였던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고 또 다시 다음 일상으로 돌아갈 힘찬 기운까지 짝짝 채워 즐겁게 나누어 먹고 다음을 기약하며 걸음을 돌려야 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첫 번째 산행!!

잊지 못할 추억일 것을 알기에 한컷 한컷 소중한 담아온 사진들~~

멋진 산세, 아기자기한 야생화, 나무, 들꽃, 함께한 점심, 동행한 이들의 환한 미소 등 다양한 모습이 담긴 그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고 있자니 불쑥 자주 들던 노랫말이 떠오른다.

[나는 간다 by 이선희]

눈앞에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보이고 그 모래 해치고 가도 다시 놓여질 모래 언덕 어제와 다른 길 어제 같이 있다.

저 넓은 사막을 나는 간다..

다 토해내지도..다 삼키지만도 않은.. 무엇인가 절제된 느낌으로 삶의 고됨과 슬픔을 담아낸 듯 하고, 하여 다시 한번 아싸아싸 파이팅도 하게 하는...

혹자들은 말한다. 죽을 힘을 다해! 다시 내려와야 할 산을 왜 올라가느냐구~ 허나.. 이 노랫말에 함축된 뜻처럼 그것이 인생이지 싶다. 오르막이 있음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편안한 평지도 있다. 턱이 숨까지 차오르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다, 숲에서 한줄기 바람을 만나게 되면 진정 반가운~ 시원한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게 되는~ 그 힘겨움 참고 정상에 올랐을 때 느껴지는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 내 발 밑으로 내려다보이는 온 세상이 마냥 다 내 것인 것처럼 그 알 수 없는 뿌듯함! 오르고 내리며 산비탈길서 자연스레 만나지는 사람들..그러면서 주고 받는 세상 사는 얘기들...

인도네시아에서의 새로운 삶!

처음으로 누려보는 새로운 경험에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머나 먼 이국 땅에서 외롭기도 하겠지~ 이번 Heritage 탐방에서처럼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으로 설렘도 갖을 수 있을테고, 또 어쩌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칠 수도 있겠지~ 허나 항상 좋을 수만도 항상 나쁠 수만도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산행이라 하기엔 사실 좀 부족했지만, 적당히 나른해지는 피곤함을 즐기기에 충분했던 walking~ 그 부족함 채우고도 남을 우리 Heritage Member들과의 새로운 만남!

선뜻 다가온 가을 바람을 느끼고,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여는 계기가 된~~얼마 동안이 될 지 모를 내 인도네시아에서의 삶! 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였다.

2014. 9. 19.





자카르타 예술의 중심 파만 이스마일 마르주끼 (Taman Isma'il Marzuki)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TIM으로 잘 알려진 파만 이스마일 마르주끼는 1968년 11월 10일, 알리 사디킨 주지사에 의해 준공되었다. 이 예술 공원은 조국을 위해 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이스마일 마르주끼의 업적과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발전하는 자카르타에 'TIM' 문화 및 문학원을 설립하여, 각 지방에서 온 예술가들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그 목표에 맞추어 자카르타 예술전문대학(Institut Kesenian Jakarta, IKJ, 1970년 개교, 4년제 대학)도 설립하게 된다.(TIM 뒤에 위치) 9헥타르 땅에 만든 TIM은 그 유명한 인도네시아 근현대미술의 초석을 놓았던 라덴살레의 별장이었다. 알리 사디킨 주지사가 도시를 잘 관리해서 변화한 자카르타 도시에 예술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지방에서 온 예술가를 모으기 위해 TIM을 설립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 곳을 라덴살레가 기증을 한 것이다. 그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을 사랑

한 라덴살레는 이곳에서 동물을 키웠다. 이 별장에 있었던 많은 동물들은 후일 라구난 동물원으로 옮겨진다.(1964년) 이스마일 마르주끼(Ismail Marzuki, 1914년 생)는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인물로 특히 작곡가로 유명하다. 참고로 그는 브타위(Betawi)족이다. 즉, 순 자카르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가인 아버지 덕으로 예술적인 환경과 친숙했다. 르바나와 우쿨렐레, 기타를 잘 다루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정식 음악 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17세(1931년) 때 억압당하는 시민의 두려움을 묘사하는 '오 사리나(O Sarinah)'를 처음으로 작곡하였다. 그 후 1930년-1950년 동안 약 250개의 노래를 작사, 작곡하였다. 그가 만든 노래는 주로 애국심에 관한 것으로 가사는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강하고 깊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멘헝에 있는 인도네시아 인을 위한 네덜란드학교에 다

났다. Lief Java 오케스트라에 가입함으로 음악 경력이 시작된다. 1934년에 인도-네덜란드 국립 라디오방송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자카르타 스튜디오, 반둥 스튜디오, Hosokanri Kyoku(일본 점령 시대) 오케스트라도 감독했다. 1957년에 ‘이게 행복인가 (Inikah Bahagia)’ 라는 마지막 노래를 만들고 그는 1958년 5월 25일 세상을 떠난다. 마침내 그는 2004년 국가 영웅으로 추대된다. TIM은 음악이나 연극, 무용 무대인 Graha Bhakti Budaya, 그림과 도자기, 조각 전시실 Galeri Cipta, Cinema 21 소극장, 2010년 새로 만들어진 Gedung Teater Jakarta, 카페와 서점, 주차장을 포함하는 TIM 플라자, 예술 전문대학, 교육·과학 여행을 위한 천문관과 천문대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국가 기록문서 보관소도 있다. 야외극장(현 Gedung Teater Jakarta)은 약 18여년전 자카르타 페스티벌 때 한국 공연(부채춤과 장고춤)만 기립박수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수카르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든 천문관은 1969년 3월 1일에 공개되었다. 따라서 3월 1일은 자카르타의 천문관 기념일이 된다. 과학 여행지 천문관은 동부 칼리만탄의 꾸타이(Kutai)과 동부 자바의 수라바야(Surabaya)와 함께 3개의 천문관 중의 하나로 천문학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교육 시설이기도 한다. 천문대에는 독일의 과학자 카를 차이스(Carl Zeiss)가 만든 망원경도 있으며 컴퓨터로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태양계 구조를 보여주는 ‘별 영화관 (Teater Bintang)’은 태양계와 어린 탐험가, 태양계 구성, 파란 지구,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일식과 월식, 쌍성과 변광성, 등 9 주제로 나누어져 상영한다. 천문학과 관련된 강의나 논의, 과학적 영화 상영, 자카르타의 천문학자 협회 연구, 전시회 등 활동을 많이 한



다. 뿐만 아니라 대기실에 흰 스크린이 있어 천문학 영화가 상영되고 ‘천문학 통로’는 지붕은 곡선으로, 벽 양쪽에는 12개의 별자리가 그려진 유리그림이 있다. 전시실에서 원반의 출입구를 통해서 신이 창조한 우주를 볼 수 있다. 바로 머리 위에 곡선 스크린이 파란 하늘에 빛나는 별과 태양계 구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 밤에 우주를 탐험하는 듯이 행성과 위성, 유성, 등 계속 움직이고 다양한 천체들을 즐길 수 있다. 하늘로 향하는 시뮬레이션 투영기가 130개의 작은 투영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보수공사를 하면서 최신장비를 갖추고 컴퓨터화 했다.

TIM에는 항상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회, 다양한 영화, 강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나라 대학로에 비유할 수 있을까. 계절 감각 없는 열대의 나라에서 무디기 쉬운 시적 영상이나 낭만적 허위나 상상력의 실핏줄을 자극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TIM에 간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찾는 꿈꾸기를 계속하고 싶다.

Jl. Cikini Raya 73 Jakarta Pusat
(021) 31937325, 31922606, 31934740,
3154087 천문관 (021) 2305146-7
상영 시간

- ▶ 화요일 - 목요일: 09.30-10.30 | 11.00-12.00 | 13.30-14.30 | 16.30-17.30
 - ▶ 금요일: 9.30-10.30 | 13.30-14.30 | 16.30-17.30
 - ▶ 토요일-일요일: 10.00-11.00 | 11.30-12.30 | 13.00-14.00 | 14.30-15.30
 - ▶ 공휴일 및 월요일: 휴관
- 입장료: Rp 3.500 (어린이), Rp 7.000 (성인)
(티켓은 1사람당 최대 6장 구입 가능)





구아바 (Guava) 슈퍼 과일 (Super Fruit)

일반명: 인도네시아 (Jambu biji, Jambu kluthuk), 태국 (Farang), 말레이시아 (Jambu batu)

과 명: 도금양과 (Family: Myrtaceae)

학 명: *Psidium guajava* L.

기원지: 멕시코 남미나 남아메리카 북부로 추정

분 포: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지역

이 용: 생과일, 주스, 잼, 젤리, 땡기열 등

모양새: 작은 테니스공 모양이며 표면은 연한 녹색이고 울퉁불퉁하다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열 대지역에서 가장 흔하고 친숙한 과일 중의 하나가 ‘구아바(Guava)’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인도네시아가 원산지가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확한 기원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멕시코 남부에서 남미의 북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중남미 열대지역에서 널리 재배된 것으로 보이며 초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복자들에 의하여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로 전파되었고 곧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 작물로 발달했습니다.

구아바에는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하여 ‘슈퍼 과일(Super Fruit)’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아바에는 비타민의 대명사 감귤류보다 많은 비타민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도네시아 민간에서 열매 속이 빨간색인 구아바 (Red guava) 품종을 땡기열 치료의 대체 요법으로 흔히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혈액 중의 혈소판 비율을 증가시켜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구아바의 생김새와 재배

작은 교목으로 가지가 옆으로 펼쳐지며 8m 높이까지 자랍니다. 잎을 문질러 냄새를 맡으면 향기가 납니다. 상록성이고 잎 모양은 타원형으로 7~15x3~5cm 크기이고 가죽질입니다. 꽃은 흰색이며 향기가 있고 잎겨드랑이에 1~3개씩 달리며 지름은 약 3cm입니다. 열매는 테니스공 모양으로 둥글고 5~12cm 크기이며 끝에 꽃받침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열매 표면은 녹색이고 속은 붉은색으로 익습니다.

번식은 꺾꽂이나 접목법으로 주로 하며 목적에 따라 큰 열매를 얻거나 씨가 적은 구아바를 얻기 위해 다양한 품종들과 교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구아바 품종에는 'Jambu Pasarminggu', 'Jambu Australia', 'Jambu Sukun', 'Jambu Bangkok' 그리고 'Jambu Merah Getas' 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구아바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자바 섬이라고 합니다. 주로 DKI Jakarta 근교와 서부 자와, 중부 자와, 족자카르타, 동부 자와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일부 수마트라 섬과 깔리만탄 섬에서도 재배를 합니다. 'Jambu Bangkok' 은 대부분 서부 자와의 Kota Kleri에서 재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식용 및 의약적 이용

구아바는 비타민 A와 C, 엽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및 칼륨, 구리, 망간 등의 미량원소가 풍부하여 식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구아바 열매 한 개에는 오렌지의 4배에 이르는 비타민 C가 들어있을 정도라 합니다. 또한, 적색 품종은 항산화제인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구아바는 생과일로 섭취하거나, 설탕물, 소금, 간장, 식초 등에 담가서 먹기도 하며 식품제조에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구아바 페이스트, 치즈, 젤리 주스, 넥타 등으로 유통되며 또한 와플, 아이스크림, 푸딩, 밀크셰이크, 잼, 버터, 파이, 케이크, 셔벗 제조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잎과 줄기에는 탄닌 함량이 높아 각종 염색과정에 활용됩니다. 뿌리, 줄기, 잎, 미성숙 열매는 열대지방에서 위장염, 이질, 설사 등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잎을 찢어서 상처, 궤양, 류머티즘 부위에 바르며 치통에는 잎을 씹기도 합니다. 잎을 달여서 감기, 목 아플때, 가슴앓이 등의 치료에 이용하며 또한 월경 촉진제 및 구충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잎과 줄기추출물은 항암효과 및 항세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물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구아바 주스, 아침에 한잔 어떠신지요?



양 잡는 날, 이돌 아드하(Idul Adha)

이슬람교에서 이돌 아드하는 르바란(=이돌 피트리(Idul Fitri)) 다음으로 가장 거룩한 날이다. 이돌 아드하 풍습은 알라(Allah)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성경에는 외아들 이삭)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간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대로 제물로 선택된 아들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묶어서 재단에 올려놓고 목을 베려다가 멈칫하는 순간, 아들 대신 양을 바쳐도 좋다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도 거룩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신앙심을 기념하기 위해 알라께 양을 제물로 바쳐 경의를 표했던 것이 전례가 되어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돌 아드하를 경축하기 위해서는 2,3 주 전부터 신에게 바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양이 없는 집에서는 소, 물소 등을 준비하여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잡는 의식을 행하는 날이다. 보통은 고향에서 준비하나 거리의 장터에서 사기도 한다. 이돌 아드하 이틀 전부터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은 그 어느 때보다 혼잡해진다. 시골에서 양, 소를 팔기 위해 도시로 많이 올라온다. 이때 도시의 돈이 시골로 들어가 자금회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물에 쓰일 동물들은 이슬람사원에 있는 이돌 아드하 지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데 건강하고 너무 어리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동물들을 도살시키는 이 의식은 이돌 아드하 기도를 마친 후 아침 8시경에 행해진다.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선택된 민족이 된 것과 죽음에서 구원해주는 사랑을 서로 나누고 즐기는 행사이다. 즉 이 행사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신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함께 체험하는 엄숙하고 거룩한 행사이며 또한 무사한 순례를 기원하기도 한다.



법치국가 (Negara Hukum)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0월 20일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코 위도도 당선자의 국정 공약 중 대대적인 개혁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너무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러난 시력 장애자였던 압둘 와히드 구스두르 대통령,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티 대통령,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출되서 5년 임기를 연임하고 퇴임이 몇 일밖에 남지 않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했으나, 법치를 강력하게 내세운 대통령은 없었다. 법치를 강조한 대통령은 새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법치 국가, 즉,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된

다는 법치국가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정사를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보며,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인도네시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만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1.1. 대륙법계(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1.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1.1.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1.1.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1.2. 영미법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2.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1.2.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1.2.3.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1.3.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1.4.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가의 기준

1.4.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1.4.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1.4.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4.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1.4.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1.4.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 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어 있어서 상기 “1.1.” 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으로 봐서, 상기 1.1. 항의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

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은 아직은 요원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형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뉘어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상업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세무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서북단 Aceh(아체)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수도인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5.1.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진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5.2.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에 세울 수 없다.

5.3.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5.4.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구금, 수색 혹은 압류당할 수 없다.

5.5. 피의자, 피체포자,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

원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5.6.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구금 혹은 재판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5.8.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5.9.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5.10. 형사 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 하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5.11.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결석 재판을 할 수 있다.

5.12.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5.13.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즉,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각 판사의 재판 근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사법부의 부조리, 특히,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 는 의견들이 많다.

5.14.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5.15.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명할 수 있다.

5.16.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

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판결문에 재판장,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5.17.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가 서명한다.

5.18.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5.19. 형사 사건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여 결정한다.

5.20.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5.21. 배석 판사가 재판장, 다른 배석 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22.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바. 판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5.23. 상기 "5.22." 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6.1. 형사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6.2. 형사 판결문의 집행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6.3. 민사 판결문은 관할 지방법원장의 지휘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6.4.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사산도의 전설

시/그림 : 이 태 복

세상에 내려왔네
천상의 소리를 가지고
어부 상구아나는
오늘도 바다를 노래한다.

아이!
이루지 못할 공주와의 사랑은
왕비의 역겨운 음모 게워내지 못하고
입을 두고 비명에 천상으로 간다.

선혈로 나뭇잎이진 사산도
유유한 Dang의 강물
한 외벽년을 띠 되어 흐른다

얼 손가락으로 뜯어
아프지 않은 곳 어디까?
서른두 갈래 찢어진 어부의 마음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하나
온 세상의 아픔을
대신 울어줄까

*사산도 :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지역의 전통 현악기



이 태 복 약력
2011년 아름다움 나눔 서양화 참여
제2회, 제3회 한-인니 문화 연구원 인터넷 공모전
장려상 수상 및 제3회 특별상 수상,
현.한-인니 문인협회 회원
한인 라디오 방송
“이 태복과 함께하는 인니 이야기” 시나리오 작가 및 진행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면 알아차리세요!



1. 눈꺼풀 안쪽이 새빨갳다

결막염, 스트레스에 의한 다혈증
눈꺼풀 안쪽이 빨갳고 동시에 가렵거나 아프고 눈
곱이 끼면 결막염을 의심 하지만 이러한 증상없이
단지 붉기만 한 경우에는 다혈증(적혈구 증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2. 눈꺼풀이 심하게 떨린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눈꺼풀이 잔물결 치듯이 떨
리면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의심해 본다.

3. 검은자위가 부영게 흐리다

백내장 검은 자위의 한 중간에는 수정체라는 것이
있는데 거울로 봤을 때 이것이 부영게 흐려 있으
면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다.

4. 흰자위가 선명한 황색으로 변해간다

황달 나이가 들어 흰자위가 누렇게 탁해지는 것
은 단순한 노화현상이나 젊은 나이에 선명한 황색
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황달을 의심.

5. 혀에 갈색 이끼같은 태가 핀다

위염 혀를 보았을 때 갈색의 이끼같은 것이 있다
면 위의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 옅은 갈색이면 걱
정할 정도는 아님.

6. 혀 뒤쪽의 정맥이 붓는다

심부전

7. 혀를 내밀 때 똑바로 내밀 수 없다

가벼운 뇌혈전 뇌에 무엇인가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판단은 의사에게...

8. 입에서 냄새가 난다

설태, 기관지 확장증 일반적으로 구취는 치질환
에 의해 발생하나 소화기 이상으로 혀에 하얗게
설태가 끼 냄새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드물게 폐에 이상이 있을때 냄새가 나며 일
년내내 담이 나오고 구취가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증을 의심.

9. 손톱의 흰 반달모양이 작아진다

영양불량 손톱뿌리 부분에 반달 모양의 흰부분
의 성장이 좋으면 커지고 나쁘면 작아지며 때로는
없어진다.
평소보다 작은 경우 건강 상태가 약간 나빠진 것임.

10. 손톱 모양이 손가락처럼 휘었다

철 결핍성 빈혈

11. 혈변

치질, 대장암 등 항문질환 혈변을 볼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는다.
치질은 보통 변에 피가 묻어나오며 변에 섞여 나
오면 대장질환을 의심.

12. 악취가 심한 방귀가 나온다

장내 중양 방귀 냄새가 아~주 심한경우 조심하
는 것이 좋음.
장에 중양이 있는경우 대사 작용이 안되고 세균에
의해 독소가 생겨 극히 고약한 냄새가 난다.
방귀의 냄새는 약할수록 건강한 것임.

13. 배뇨시 요도가 아프다

요도염 오줌을 누기 시작할 때 아픔을 느낀다면
요도의 출구에 염증을 의심.

14. 배뇨시 아랫배가 아프다

방광염 소변을 다 누고서 바로 아랫배에 통증이
있을 때 또는 배뇨 중에 따끔따끔 하는 아픔이 있
을때 방광염을 의심.

15. 가슴이나 얼굴에 거미 모양의 반점이 생긴다

간경변, 만성간염 얼굴, 목덜미, 가슴 부분에 작
은 거미가 발을 펼치고 멈춰 있는 것 같은 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으면 간경변이나 만성 간염 등 간
기능 저하 의심.

16. 식사 후 트림이 자~주 나온다

위염 트림은 위장속에 발생한 가스가 나오는 현
상임.
너무 자주트림이 나오면 위염 등을 의심.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한때 베스트 셀러였던 ‘시크릿’이라는 책을 아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같은 물건을 보고도 어머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과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하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 다를 것 같습니다.

“ 생각 말 행동 습관 성격을 조심하세요!”

- 생각을 조심하세요
- 언젠가 말이 되니까
- 말을 조심하세요
-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 성격을 조심하세요
-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마더 테레사

고양이가 있다 “Kucing Cinta”
 남자친구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양순에게 복수할
 궁리만 하는 수리는]
 양순이 표절문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내심 기
 빼한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 작가가 본인의 잘
 못이라는 시인 기사를 올려 생각했던 것 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자.
 분명히 어떠한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Konspirasi / Persekongkolan / Per.

se.ku.tu.an/ Rekayasa / Main mata 작당을 하다. 모의를 하다... 공모를 하다/ 알리바이를 맞추다 등의 비슷한 의미이지만 문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단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Konspirasi [Kons. pi. ra. si]

공모, 음모라는 뜻으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 Runtuhnya WTC 9/11 diduga akibat **konspirasi** negara-negara barat untuk menguasai aset-aset minyak di Timur Tengah.

9.11 WTC 폭파 사건은 중동국가의 석유 쟁탈을 위한 서방국가들의 음모로 보여진다.

- Beberapa pakar menyakini bahwa pada setiap peristiwa yang terjadi di dunia dipengaruhi oleh **konspirasi** beberapa pihak yang ingin menguasai dunia.

몇몇 전문가들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의 음모 속에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Persekongkolan [Per.se.kong.kol.an]

어근은 sekongkol로 범죄를 꾸미거나,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라는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 Penyelundup narkotik serta beberapa orang **sekongkol**nya sudah tertangkap 마약 밀수업자와 몇몇 공범자들은 이미 잡혔다

Persekutuan [Per.se.ku.tu.an]

어근은 Sekutu로 연합, 동맹, 연맹 등의 뜻을 가지며, 협회나 상호 협력 관계의 연합을 의미한다.

- Bentuk pemerintahan negara **sekutu** berlainan dengan negara kesatuan
연합국가 정부의 형태는 단일 국가와는 다르다

- **Persekutuan** antar ke dua negara akhirnya terwujud.

마침내 두 국가간의 동맹이 실현되었다.

Rekayasa [Re.ka.ya.sa]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음모를 꾸민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된다.

- Untuk mencapai tujuannya ke dua perusahaan itu membuat **rekayasa** pada kecelakaan pabrik di kota itu.

두 회사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장에 사고가 난 것처럼 음모를 꾸몄다.

Main mata 눈짓을 보내다라는 뜻으로 일종의 암호나 신호를 남모르게 보낼 때 사용된다.

- Polisi itu **main mata** kepada korban yang sedang disekap sebagai tanda untuk melepaskan diri pada waktu yang tepat.

경찰은 유치장에 구금된 피해자에게 적당한 시기가 오면 풀어주겠다고 눈짓을 줬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 | 생각의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를 말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했다. 그 후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다.



위험한 사람들

조 내버로, 토니 시아라 포인터 공저/박세연 역 | 리더스북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위험한 인물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지난 35년여 간 인간행동을 연구해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유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와 비정상적인 행동, 위험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기꺼이 독자들에게 나누고자 한다. 이 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한 인물 가까이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물론, 언제든 그럴 잠재적 위험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공부의 힘

노태권 저 | 21세기북스

막노동꾼 중졸 아빠, 중졸 두 아들을 명문대에 보낸 비결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용을 만든다는 말도 있다. 물론 우스갯소리 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재력이 아이들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태를 반영한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깨 버린 삼부자가 있다. 난독증 때문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해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막노동꾼 아빠가, 게임중독과 아토피로 역시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두 아들을 직접 가르쳐 서울대 경영학과 4년 장학생과 한양대 연극영화과 수석 입학생으로 만든 이야기가 그것이다.

프랑스 엄마 수업

안느 바커스 저/최연순 역 | 북로그컴퍼니

소리 지르지 않고, 때리지 않고 말 잘 듣게 하는 100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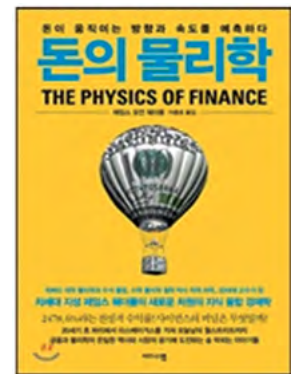
아이를 너무나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키우는 부모들도 있다. 이런 부모들은 아이가 무엇을 하든, 특히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소리 치고, 남의 물건을 건드리고, 목청껏 울어대도 절대 아이를 혼내지 않는다. 왜?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들이 아이를 어른처럼 민주적으로 대하라고 말해왔으니까. 하지만 안느 바커스는 분명히 말한다. 작년부터 대한민국 엄마를 뒤흔들고 있는 프랑스 육아서의 완결판, 『안느 바커스의 프랑스 엄마 수업』에는 이처럼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더불어 답답한 부모의 가슴까지 뺨 뚫어주는 ‘프랑스 교육법’의 정수가 담겨 있다.



돈의 물리학

제임스 오언 웨더롤 저/이충호 역 | 비즈니스맵

천재 물리학자 제임스 웨더롤 교수의 새로운 차원의 지식 융합 경제학. 2478.6%라는 전설적 수익률! 사이먼스의 비밀은 무엇일까? 성공의 이유는 명확하다. 월스트리트에서 과학에 의존해 경쟁자보다 현명하게 행동한 것이다. 그들은 시장의 광기를 예측하고, 돈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계산한다.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 수석 졸업, 수학 물리학 철학 박사 학위 취득, 20대에 교수가 된 차세대 지성 제임스 웨더롤 교수가 금융과 물리학 사이의 은밀한 역사를 밝히며, 새로운 차원의 지식 융합 경제학을 선보인다.



또 잘못 뽑은 반장

이은재 글/신민재 그림 | 주니어김영사

진정한 리더의 모습과 자질을 알려 주는 생활 동화

2009년에 출간되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잘못 뽑은 반장의 두 번째 이야기다. 1대 잘못 뽑은 반장 이로운에 이어, 이번에는 ‘어쩌다’ 반장으로 뽑힌 소심한 소녀 공수레의 이야기를 다뤘다. 존재감 제로, 자기주장 제로, 자신감 제로인 공수레가 반장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렸으며, 더불어 진정한 리더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해 줄 것이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2014년 한인회 임원잔조금 명단

10월2일현재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PT. KORINDO GROUP	2014	20,000	
2	한인회 명예고문	김 재 유	PT. DONG SUNG	2014	5,000	
3	한인회 회장	신 기 업	PT. HANINDO EXPRESS	2014	20,000	
4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	2014	10,000	
5	한인회 수석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2014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4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2014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4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4	5,000	
10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4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4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4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2014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 진 수	PT. SUNGBO JAYA	2014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4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최 상 학	BANK WOORI	2014	5,000	
17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PT. INHWA INDONESIA	2014	5,000	
18	한인회 자문위원단 의장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4	2,000	
19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4	1,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4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2014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4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만	PT. KIPCO UTAMA ENERGY	2014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4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4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박 동 희	PT. TRIKARYA ALAM	2014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박 헌 식	PT. DONGAN KREASI	2014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NESIA	2014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 PUTRA HANKUK	2014	1,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31	한인회 자문위원	이 승 민	YSM & PARTNERS	2014	1,000	
32	한인회 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4	1,000	
33	한인회 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4	1,000	
34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웅	코린도 장학재단	2014	1,000	
35	한인회 자문위원	조 용 준	CV. TIGA BINTANG JAYA	2014	1,000	
36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INDO	2014	1,000	
37	한인회 자문위원	하 연 수	PT. SEOLIN	2014	1,000	
38	한인회 자문위원	현 상 범	PT. INAMEN JAYA	2014	1,000	
39	한인회 이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4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40	한인회 이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SHOP	2014	1,000	
41	한인회 이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4	1,000	
42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4	1,000	
43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4	1,000	
44	한인회 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4	1,000	
45	한인회 이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4	1,000	
46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4	1,000	
47	한인회 이사	김 성 국	PT. TRISTAN RESOURCES	2014	1,000	
48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 BTEXB INDONESIA	2014	1,000	
49	한인회 이사	김 수 용	PT. NOBLE INDONESIA	2014	1,000	
50	한인회 이사	김 종 헌	PT. KOIN BUMI	2014	1,000	
51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4	1,000	
52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4	1,000	
53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4	1,000	
54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4	1,000	
55	한인회 이사	배 정 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4	1,000	
56	한인회 이사	서 영 름	PT. PRATAMA ABADI	2014	1,000	
57	한인회 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IMER	2014	1,000	
58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IL JAYA	2014	1,000	
59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2013	1,000	
60	한인회 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4	1,000	
61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4	1,000	
62	한인회 이사	안 흥 제	PT. KOLON INA	2014	1,000	
63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BALARAJA	2014	1,000	
64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65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4	1,000	
66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2014	1,000	
67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4	1,000	
68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PT. U I B	2014	1,000	
69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L S W	2013	1,000	
70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PT. KORINA SEMARANG	2014	1,000	
71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4	1,000	
72	한인회 이사	이 창 훈	PT. KIDECO JAYA AGUNG	2014	1,000	
73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4	1,000	
74	한인회 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4	1,000	
75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2014	1,000	
76	한인회 이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2014	1,000	
77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2014	1,000	
78	한인회 이사	황 윤 흥	자카르타경제일보사	2014		11675000
총 금액					\$186,000	Rp11,675,000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 액	
			IDR	USD
1	이 지 현	2014	6,000,000	
2	김 주 철	2014	3,000,000	
3	이 종 후	2014	1,000,000	
4	백 승 래	2014		200
5	손 용	2014	300,000	
6	임 성 용	2014	300,000	
7	이 승 민	2014	300,000	
8	김 재 민	2014	300,000	
9	신 기 업	2014	300,000	
10	강 희 중	2014	300,000	
11	강 덕 재	2014	3,300,000	
12	김 원 모	2014	300,000	
13	권 영 동	2014	300,000	
14	김 일 태	2014	300,000	
15	이 소 왕	2014	300,000	
16	이 완 주	2014	300,000	
17	이 효 욱	2014	300,000	
18	정 재 호	2014	300,000	
19	최 건 호	2014	300,000	
20	최 문 중	2014	300,000	
21	홍 석 진	2014	300,000	
22	홍 훈 섭	2014	300,000	
23	김 섭	2014	300,000	
24	김 종 주	2014	300,000	
25	오 세 윤	2014	300,000	
26	김 현 동	2014	300,000	
27	백 승 명	2014	300,000	
28	윤 석 환	2014	300,000	
29	이 기 열	2014	300,000	
30	이 정 호	2014	300,000	
31	최 호 영	2014	300,000	
32	황 재 규	2014	300,000	
33	한 기 환	2014	300,000	
34	배 희 윤	2014	300,000	
35	이 봉 규	2014	300,000	
36	이 원 만	2014	300,000	
37	박 정 호	2014	300,000	
38	양 영 연	2014	300,000	
39	배 영 태	2014	300,000	
40	최 철 우	2014	300,000	
41	김 영 수	2014	300,000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42	이 일 하	2014	300,000	
43	이 수 진	2014	300,000	
44	장 방 식	2014	300,000	
45	조 규 철	2014	300,000	
46	최 양 기	2014	300,000	
47	엄 종 한	2014	300,000	
48	no name	2014	300,000	
49	오 세 명	2014	300,000	
50	김 세 형	2014	300,000	
51	서울메디칼	2014	300,000	
52	김 도 상	2014	300,000	
5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500,000	
54	김 영 울	2014	300,000	
55	김 창 근	2014	300,000	
56	김 대 근	2014	300,000	
57	조 용 재	2014	300,000	
58	이 재 원	2014	300,000	
59	ROTC 김 수 용	2014	300,000	
60	ROTC 김 흥 규	2014	300,000	
61	ROTC 최 형 욱	2014	300,000	
62	ROTC 김 광 석	2014	300,000	
63	ROTC 김 기 주	2014	300,000	
64	ROTC 목 의 수	2014	300,000	
65	ROTC 김 성 주	2014	300,000	
66	ROTC 이 시 현	2014	300,000	
67	최 우 범	2014~2018	1,500,000	
68	신 규 태	2014~2015	600,000	
69	김 영 필	2014	300,000	
70	김 종 현	2014	300,000	
71	임 성 필	2014	300,000	
72	이 지 완	2014	300,000	
73	강 영 균	2014	300,000	
74	이 현 식	2014	300,000	
75	서 준 형	2014	300,000	
76	김 경 국	2014	300,000	
77	김 우 재	2014	300,000	
78	강 희 중	2014	300,000	
79	박 현 식	2014	300,000	
80	현 상 범	2014	300,000	
81	장 인 욱	2014	300,000	
총 금액			Rp38,800,000	\$2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 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F 070. 4644. 2280(Dir)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 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 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 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 학교 (JIS)	750 3640
북국제 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 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 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 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 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 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데مْ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 외교(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김인환)	0813 1572 188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4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송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람임마누엘 교회	8990 3133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cbn.net.id, doowangjkt@gmail.com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온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존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JUNO 유니폼 전문업체

유니폼 주문제작

- * 회사 유니폼, 작업복, 티셔츠, 모자, 가방 및 단체복 주문 /생산합니다.
- * 인도네시아 전 지역 신속 정확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 * 방전복 등 특수복 제작 가능합니다.
- * 바틱 맞춤

Marketing: (021) 888-52369
HP: 0816-183-4699
Factory: Bekasi Barat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카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카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	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브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브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둥) (022)	203	1626
코리아우스(Hitsip)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쁘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163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1066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143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8515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80591625	
세명 하숙	08521757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가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 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pearl@hanmail.net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세계 패션 의류 생산의 중심, 두산

선진 섬유 기술의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 온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는 글로벌 의류 시장의
우뚝 선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 입니다.

PT. DOOSAN CIPTA BUSANA JAYA 



Haesley Nine Bridge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서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독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깔리만탄 Pase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